

# 烏臺詩案에 대한 既存 研究의 限界와 그 解決 方向

鄭世珍\*

<目次>

I. 서론	2. 기존 연구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향
II. 본론	III. 결론
1. 기존 연구 개황	

## I. 서론

烏臺詩案은 하나의 사건이자 하나의 책을 가리키는 이름이다. 사건으로서의 烏臺詩案은 元豐 2년(1079)에 蘇軾이 湖州知州로 부임한 후 ‘시’<sup>1)</sup>로 써 조정을 비방했다는 죄목으로 갑작스럽게 御史臺에 체포되어 옥고를 치른 일련의 일<sup>2)</sup>을 가리키며, 서적으로서의 烏臺詩案은 蘇軾을 고발했던 관

\* 서울대학교 中語中文學科 博士課程 修了

- 1) ‘시’: 이 논문에서 ‘시’라 표기한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중국의 전통 시가를 의미하는 ‘시’다. 이런 ‘시’는 일반명사로서의 시라고 보기 어렵다. 자신의 서정을 풀어내는 것이 아닌 자신의 정견과 의지를 담아낸 지극히 중국적인 ‘시’이기 때문이다. 여러 논자들도 지적하는 바이지만 이런 시들은 고유명사로서의 ‘시’에 가깝다. 둘째, 烏臺詩案에 연루된 蘇軾의 ‘시’를 말한다.
- 2) 사건으로서의 烏臺詩案에 대한 기존 연구는 비교적 많은 편이다. 대표적인 것으로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이들 논문은 烏臺詩案의 始末, 사건에 연루된 蘇軾의 詩를 거론하고 있으나, 본문에서 다룰 세 편의 학위논문과 내용상 큰 차이가 없어 아래의 소논문은 중점적으로 다루지는 않겠다.

Chales Hartman, <Poetry and Politics in 1079: The Crow Terrace Poetry Case of Su Shi>, 《Chinese Literature: Essays, Articles, Reviews(CLEAR)》 Vol. 12, 1990, 15-44쪽.

리들의 상소문, 조정을 비방했다는 혐의가 있는 ‘시’에 대한 蘇軾의 자술서와 같은 정부 문건이 모여져 출간, 유통된 책을 가리킨다.

烏臺詩案은 다름 아닌 ‘시’가 연루된 文字獄의 시초이자 그와 관련된 정부 문건이 책으로 출간된 보기 드문 경우이기에 많은 연구자들의 이목을 끌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의 연구 성과를 살펴보면 烏臺詩案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답보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기존에 발표된 세 편의 학위 논문을 중심으로 기존 연구 성과를 정리, 분석하고 여기서 발견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향을 제시 하도록 하겠다.

## II. 본 론

### 1. 기존 연구 개황

烏臺詩案은 학위 논문, 소논문, 혹은 筆禍史에서 여러 층위로 다루어졌다. 학위논문의 경우만 살펴보아도 중화권에서 이미 세 편이 발표되었으므로 본 논문의 가치는 이 논문들과의 변별성 속에서 확보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비교적 긴 편폭으로 가장 심도 있는 분석을 내놓았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학위 논문을 중심으로 기존 연구를 분석, 비교하고자 한다. 기존 소논문 중 烏臺詩案을 개술한 것의 경우 학위논문 이상의 내용을 담아낸 것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다만 몇몇 중요한 논점을 제공한 소논문은 적극적으로 참고 하여 기왕에 이루어진 烏臺詩案 연구의 장점과 문제점, 앞으로

莫礪鋒, <烏臺詩案史話>, 《古典文學智識》, 2007年 5期, 2007年 6期, 2008年 1期, 2008年 2期

楊勝寬, <“烏臺詩案”前後的蘇軾>, 《宜賓師專學報》, 1993年 1期, 102-106쪽.  
夏詩荷, <“三舍人議案”, “烏臺詩案”與宋代政治>, 《溫州大學學報》 Vol. 20, 2007年 7月.

曾棗庄, <論眉山詩案>, 《四川師院學報(社會科學版)》, 1980年 3期, 59-88쪽.

의 연구 방향을 모색해보도록 하겠다.

烏臺詩案에 대한 학위 논문으로 다음의 세 편이 있다.<sup>3)</sup>

- 가) 江惜美, <烏臺詩案研究>, 臺灣: 東吳大學 中國文學研究所 석사논문, 1987.
- 나) 溫澤遠, <烏臺詩案研究>, 上海: 復旦大學 中文系 박사논문, 1999.
- 다) 周克勤, <烏臺詩案研究>, 重慶: 西南師範大學 漢語言文學系 석사논문, 2002.

이 세 논문은 발표된 시기는 다르지만 모두 같은 제목을 갖고 있다.<sup>4)</sup> ‘烏臺詩案研究’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이 세 편의 논문은 烏臺詩案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선 발표된 순서에 따라 가), 나), 다)의 기호를 부여하고 그 내용을 분석해보도록 하자.

가)의 논문은 가장 이른 시기에 臺灣에서 발표된 석사학위 논문이다. 이 논문은 본문을 다섯 장으로 구성하였다. 그 중 烏臺詩案의 원인에 대한 제3장의 분석이 주목할 만하다. 논자는 蘇軾이 新法의 불편함을 토로한 것은 국가에 대한 충성심에서 발로한 것이나 그의 활달한 개성과 직설적 화법으로 인해 필화 사건이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결국 소식이라는 뛰어난 한 인물을 여러 명의 소인배가 은연 관계, 혹은 자기 정당의 이익을 위해 ‘시’를 구실 삼아 사건을 만들어냈다는 요지다. 이 설명이 궁극적으로는 옳은 지적이라 할 수 있지만 그 원인분석이 지나치게 蘇軾 개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제5장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나타난다. 논자는 烏臺詩案의 영향을 蘇軾 개인의 詩風 변화에 중점을 두어 설명하였는데 이 역시 烏臺詩案의 영향 관계를 협소하게 처리한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이 논문은 烏臺詩案에 연루된 ‘시’<sup>5)</sup>와 그 ‘시’에 대한 蘇軾의 진술을

3) 기존에 발표된 학위논문 중, 중국 河南大學에서 발표된 석사 학위 논문이 있으나, 이것은 법률학적 관점에서 이 사건을 다루고 있으므로 참고 정도로 그치기로 한다. (王忠燦, <論官員犯罪和北宋司法審判的特點-以烏臺詩案爲切入點>, 河南大學 法律史 專業, 2008)

4) 이 세 편의 논문 중 뒤에 발표된 溫澤遠과 周克勤의 논문은 각각 선행연구를 언급하고 있지 않다.

성실하게 정리한 미덕이 있다. 다만 烏臺詩案에 관련된 ‘시’의 用典 방식, 표현 기교를 평가하는 데에 245쪽의 서술 중 137쪽을 할애했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 소식 ‘시’의 기교야 많은 이들이 극찬하는 바이며 ‘시’가 연루된 사건이니 그 ‘시’의 전모를 파악해보고자 하는 논자의 의도를 짐작할 수 있지만 이들 분석이 지나치게 일반화된 방법으로 일반화된 결론을 도출하여 蘇軾의 어느 시기 어느 ‘시’에서도 이러한 결론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볼 때 이러한 작업을 통해 烏臺詩案에 연루된 ‘시’만의 특질을 찾아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1999년, 復旦大에서 발표된 박사학위 논문을 살펴보자. 이 논문이 가)의 논문을 심화한 면이 있다면, 《烏臺詩案》의 판본을 정리했다는 점, 烏臺詩案의 사건 전말을 총 82쪽의 논문에서 37쪽의 지면을 할애해 자세히 정리한 점, 儒家의 전통적인 ‘詩教’ 관념을 끌고 와 蘇軾 ‘시’에 담긴 사회 비판과 정치 풍자의 당위성을 논하고자 했다는 점이다. 특히 논자는 다음과 같은 의미 있는 의문을 제기하였다. 첫째, 수많은 사람들이 변법을 반대하고 글을 남겼는데 그 이외의 인물들은 왜 직접적으로 文字獄에 연루되지 않았는가? 둘째, ‘시’에 정치적 입장을 담은 것은 漢대 이래 儒家 詩教의 전통인데 유독 蘇軾이 이런 화를 입은 이유는 무엇인가? 논자의 논리에 따르면 蘇軾의 ‘시’에 있어 어사대에서 문체 삼았던 것은 그 정도의 문제였다. 다시 말해 諷諫을 넘어 비방<sup>6)</sup>한 죄가 크다는 것이었다. 또한 유독 그가 화를 입었던 것은 蘇軾 개인의 성품과 재주에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烏臺詩案의 원인을 蘇軾 개인의 재주와 영향력과 연관 지은 것은 가)의 논문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이것이 “왜 하필 이 당시에 蘇

5) 현재 《烏臺詩案》에 인용되어 있는 ‘시’들이다. 이 책에 인용된 ‘시’들이 당시에 문제가 되었던 ‘시’들 전부인지에 대해서는 논의할 거리가 많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히 논하기로 한다.

6) 비방: 《東坡烏臺詩案》과 같은 원 텍스트에는 ‘譏諷’ 등의 단어로 표현되어 있다. 다른 연구자들이 ‘풍자’라는 단어를 선택해 번역한 예가 있지만 신법과들이 蘇軾의 진술에서 끌어내려고 했던 것은 아마도 조정과 신법을 ‘비방’했다는 죄목일 것이므로 ‘비방’이라 표기하도록 한다.

軾의 ‘시’가 문제가 되었는가?”라는 논자 자신이 던진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충분한 대답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2002년에 발표된 석사학위논문이 있다. 이 논문 역시 烏臺詩案의 사건을 개술한 면에 있어서는 선행 연구와 별 차이가 없으나 부가된 점이 있다면 ‘臺諫에서 蘇軾에게 죄를 씌우기 위해 斷章取義의 방법으로 시의 本義를 왜곡하였고, 이것은 어사대 臺諫들의 모난 인품(人性的陰暗)과 관계되어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斷章取義라는 전통적 해석 방법으로 蘇軾의 ‘시’를 문제 삼았다는 그의 지적은 온당하나 신법과 인사들의 인품까지 논한 것은 논자의 객관성이 아쉬운 대목이었다.

이상 살펴 본 세 편의 학위논문은 烏臺詩案이라는 사건과 《烏臺詩案》이라는 책에 대해 충실히 정리, 분석하였다. 烏臺詩案의 자료는 비교적 한정되어 있어서 이외에 烏臺詩案의 사실 관계를 새로이 발견해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 논문들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은 烏臺詩案의 원인과 영향 관계를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점, 《烏臺詩案》이라는 텍스트 내에서 발견할 수 있는 여러 의미들을 소홀히 다루어왔다는 두 가지다. 다음 절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해결하지 못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를 해결할 수 있는 가설과 연구 방향을 제시하겠다.

## 2. 기존 연구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향

### 1) 烏臺詩案의 원인과 영향 관계 재 규명

앞서 살펴본 바대로 烏臺詩案의 원인과 영향에 대한 이전 연구는 蘇軾 개인에 초점을 맞춘 것이 대부분이었다. 왜 하필 ‘시’가 문제가 되었는지에 대한 물음에 이전의 논자들은 ‘시’에 시인의 정치적 입장이 녹아 있기 때문이고, 이런 ‘시’ 쓰기 방식은 고전 시가 전통에서 당연한 것이라 했다. ‘왜 하필 蘇軾 당시에?’라는 질문에는 蘇軾이 워낙 유명하고 뛰어난 인재이기 때문이라고<sup>7)</sup> 대답해왔다. 그렇다면 문인들의 정치적 태도가 가장 잘

7) 사실 蘇軾의 재주가禍를 불러일으켰다는 시각은 매우 오래된 것이다. 예를

드러난 글쓰기 양식인 상소문은 왜 문제가 되지 않았는가? 이 당시에 司馬光, 張方平等 같은 구법파의 핵심 원로들, 蘇軾 이상으로 유명한 이들이 문자옥의 도화선이 될 수 없었는가? 그리고 왜 ‘시’를 문제 삼는 문자옥이 유독 이 시기에 일어나게 되었는가? 이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해서는 이전의 논문들에서 해답을 찾기 어렵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를 통해 烏臺詩案에 연루된 蘇軾의 작품을 찾아보면 ‘시’가 47편, 文이 14편으로 ‘시’가 압도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문인들의 정치적 태도가 표면으로 잘 드러나는 글쓰기 양식이라면 상소문을 들 수 있을 텐데 이런 글들은 왜 직접적으로 거론되지 않았던 것일까. 사실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은 매우 간단할 수도 있다. 바로 상소문이 그러한 글임이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것이다. 상소문은 상소하는 자의 정치적 입장을 대내외에 드러내는 공식적인 절차이다. 따라서 요지가 분명한 상소문의 함의를 호도, 왜곡하기 어렵다. 또한 상소문에 대해 전통 왕조는 그것을 용인해야만 할 도덕적 의무를 갖고 있었으므로 상소문을 직접적으로 문제 삼아 정적을 해치는 것은 적어도 도덕적 군주, 도덕적 신하라면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시’가 문제가 되었는가. ‘시’는 전통 시기 한 사람의 생각과 입장의 총체이다. ‘시’에는 시인의 진실한 뜻, 정견, 소기의 목적, 야망 같은 것이 드러난다. ‘시’는 단순한 서정의 표출 수단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宋대에 이르면 이러한 ‘시’에 다음 두 가지의 특징이 부가된다. 바

들어 ‘蘇軾은 일생동안 재주로 이름을 얻었으며 또한 재명으로 화를 입었다(東坡一生以才得名, 亦以才得禍)’라는 趙翼의 평가는 널리 알려진 것이다. (趙翼, 송용준역, 《甌北詩話》, 서울: 서울대출판부, 2009, 298쪽.)

- 8) 烏臺詩案을 일으켰던 신법파 인사들은 蘇軾이 湖州知州로 부임해 올린 <湖州謝上表>를 문제 삼았다. 비록 그 내용이 烏臺詩案의 직접적인 발단이 될 만큼 그 어조가 조소 섞인 것이었지만, 이것은 蘇軾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담은 상소문이 아니라 새로운 임지에 부임했음을 황제에게 고하는 형식적인 문장이었다. 烏臺詩案에 직접적으로 연루된 나머지 문장들도 상소문이 아니라 <왕분에게 지어준 비문(與王紛作碑文)>, <왕안상에게 지어준 공당기(爲王安上作公堂記)>, <후기국부(後杞菊賦)>와 같은 것들이었다.

로 ‘시’가 일상생활화와 唱和의 유행이 그것이다. ‘시’가 호흡하는 것과 같이 매 순간 쓸 수 있는 양식이 되었기 때문에 ‘宋詩’는 시인의 일상생활을 여실히 담아낼 수 있게 되었다. 더구나 宋대에 이르러 더욱 유행하게 된 唱和의 방식으로 인해 ‘시’의 관계망은 곧 인간세계의 관계망이 되었다. 설사 唱和詩가 아닐지라도 가까운 사이일 경우 서로가 지은 시를 보여주고 그 시에서 모티프를 얻어 또 다시 시를 쓰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다시 말해 ‘송시’에는 시인의 평소 생각과 생활이 들어 있었고 唱和의 행위는 곧 현실 세계 교분의 상징이었다. 그러므로 ‘송시’를 문제 삼는다는 것은 곧 그 사람의 평소 생각과 생활은 물론, 불온한 ‘시’를 쓴 사람 뿐 아니라 받은 사람까지도 문제 삼겠다는 의지의 표명이 된다. 다시 말해 ‘시’ 하나를 들추어냄으로 해서 시인은 물론 시인과 그 ‘시’를 받은 이까지 一網打盡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다.<sup>9)</sup>

그러나 이런 논리라면 宋대 어느 시인의 ‘시’라도 文字獄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당시 李定, 舒亶, 何正臣, 李宜라는 대간들은 蘇軾의 ‘시’가 인구에 회자되어 中外에까지 퍼져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했다.

감찰어사리행 하대정의 상소문 <監察御史裏行何大正劄子>: 소식이 쓴 비방하는 시문 중에서 사람들에게 전해진 것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판각되어 저자에 팔리고 있는 것을 올리나니 폐하께서 특별히 마음을 두고 살펴 주시어 성지를 내려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軾所爲譏諷文字, 傳於人者, 甚衆. 今獨取鏤板而鬻於市者進呈, 伏望<sup>10)</sup> 陛下特賜留神, 取進止)

- 9) 물론 이 사건에 연루된 蘇軾의 詩가 모두 唱和詩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烏臺詩案中에서 문제가 된 것은 詩를 唱和한 것과 더불어 詩를 주고 받고 돌려가며 읽는 ‘공유’의 문제까지 포함한다. 《烏臺詩案》에서 사건에 연루된 인물을 일일이 나열하면서 ‘비방의 내용이 있는 시를 받은 인물(收蘇軾有譏諷文字)’과 ‘비방의 내용이 없는 시를 받은 인물(承受無譏諷文字)’들을 나누어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도 이를 알 수 있다.
- 10) 《東坡烏臺詩案》원문을 보면 陛下, 聖旨 등 황제와 관련된 단어 앞에는 한 칸을 띄워놓거나 줄을 바꾸어 놓은 경우를 볼 수 있다. 이것은 황제를 높이는

감찰어사리행 서단의 상소문 <監察御史裏行舒亶劄子>: 그 외에도 사물을 대할 때마다 곧바로 글로 읊기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한 것 중에 비방을 위주로 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작게는 나무판에 새겨지고 크게는 돌에 새겨져 중원 밖까지 전해지다 보니 스스로 자신이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其他觸物卽事, 應口所言, 無一不以譏謗爲主. 小則鏤板, 大則刻石, 傳播中外, 自以爲能)

어사중승 이정의 상소문 <御史中丞李定劄子>: 그 오만하고 건방진 말들이 날로 중원 밖까지 전해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가 폐해져야 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소식이 지은 글들이 비록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는 하나 풍속을 어지럽히고 동요시키기에 충분하여 소위 말은 그릇된 것이지만 말만 그럴듯한 격입니다. (傲悖之語, 日聞中外. 此二可廢也. 軾所爲文辭, 雖不中理, 亦足以鼓動流俗, 所謂言僞而辨)

위의 상소문들 모두 蘇軾의 ‘시’가 조정을 비방하는 불온한 생각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널리 전해져 여론을 악화시키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의 ‘시’가 책으로 출간, 저자에서 유통되어 속편이 나올 만큼<sup>11)</sup> 인기를 끌었고 이를 고려 사신들이 사갈 정도<sup>12)</sup>였다고 하니 신법과 인사들이 느낀 위기감이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해볼 수 있다. 현재의 우리도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는 수많은 정보들을 통제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듯이 이들 또

행위의 일종이다. 이조원이 “此本遇朝旨等字俱擡頭其爲宋人足本”이라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근래에 인쇄된 책자들은 띄어 쓰거나 행을 바꾸어놓은 이런 양식을 살리지 않았다.

- 11) 蘇軾의 시집은 蘇軾 자신이 출간한 것이 아니라, 책을 출판해 돈을 벌어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의 ‘시’를 모아 간행한 것이다. 烏臺詩案 당시 여사대에서는 저자에서 팔리는 시집을 조정에 증거물로 제출했는데, 그 시집의 제목이 <<元豐續添蘇子瞻學士錢塘集>>이다. 이 시집의 제목으로 볼 때 이 시집은 속편이며, 이 이전에 또 다른 <<錢塘集>>이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元豐續添蘇子瞻學士錢塘集>>은 蘇軾이 杭州通判으로 있을 때에 지은 ‘시’를 모은 책이다.
- 12) <<蘇魏公文集>>에서 蘇頌의 自註에 ‘지난해에 고려 사자가 여항에 와서 저자에서 자점의 시집을 사서 돌아갔다.(前年, 高麗使者過余杭, 求市子瞻集以歸)’라 했다.

한 갑작스럽게 팽창된 출판 시장의 영역과 출판물의 유통으로 인해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이상으로 ‘시’가 퍼져 나가고 자신들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쪽으로 돌아설 것에 대해 몹시 불안해했을 것이다.<sup>13)</sup> 바로 이러한 불안감 때문에 여론을 억압하고 통제해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을 것이라 판단된다.<sup>14)</sup> 이들이 저자에서 蘇軾의 책을 구해 증거 자료로 제시하고 연속적으로 상소문을 올리면서 이 문제를 거론하는 등 치밀하게 움직인 것도 바로 언론을 억압해보겠다는 시도로 읽힌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여론은 그들의 의도와 반대로 움직였다는 점이다. 이 이후 蘇軾은 목숨만 부지한 채 유배되었고 蘇軾의 시집 및 문집은 禁書가 되었지만<sup>15)</sup> 그 ‘시’의 인기는 가라앉을 줄 몰랐다. 심지어 이 사건의 정부 문건이 책으로 인쇄되어 여러 판본으로 유통되기에 이르렀다. 다시 말해 금지된 것에 대한 사람들의 호기심 덕분에, 정부에서 탄압하여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하고자 했던 ‘시’들이 오히려 더욱 유명해지는 반작용이 일어났던 것이다.

13) 출판 시장 확대와 蘇軾 형제의 행보에 대한 논문으로 周宝榮의 <從“烏臺詩案”看蘇氏兄弟的出版活動>이 있다. 이 논문은 烏臺詩案과 출판시장 확대와의 관련성을 논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저자는 이 글에서 蘇軾의 ‘시’가 당시에 출간되어 유행한 사실 관계를 밝히고 烏臺詩案 이후 이들 형제가 출판물의 간행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를 정리하였다.

14) 趙翼 또한 烏臺詩案과 시집 출간 사이의 관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한 바 있다. “대개 소식의 시가 지어지면 바로 판각되어 유포되었으니 일시에 재명을 날려 한 시대를 풍미하였다. 그를 싫어하는 자는 시를 나열하여 죄목으로 삼았으니, 재앙을 입은 이유 또한 여기에 있다. 지금 ‘오대시안’에 대해 논하자면 죄인의 범죄사실을 조사한 서류에 올라간 시는 한 사람 한 때의 일이 아니다. 만약 판각하여 책으로 만들지 않았다면 그를 싫어하는 자들이 어떻게 도처에서 모으고 이를 묶어서 상소함으로써 그 잘못을 캐물었겠는가? (大概東坡詩有所作, 卽刊刻流布, 故一時才名震爆, 所至風靡; 而忌之者因得臚列以坐其罪, 故得禍亦由此. 今卽以烏台詩案而論, 其詩之入於爰書者, 非一人一時之事; 若非刻有卷冊, 忌者亦何由逐處采輯, 彙爲一疏, 以劾其狂謬)”

15) 崇寧 2년(1103)의 금서 조령은 시행된 지 삼년 이후 어느 정도 느슨해져서 宣和 5년(1123) 가을 복건에서 소식의 문집이 다시 간행되기 시작하였다고 보고되었을 때 휘종은 당장에는 금서령을 내렸다가 그 다음 해에는 조서를 내려 사적으로 소식과 황정건의 문집을 가지고 있으면 불태울 것을 명했다고 한다.

물론 蘇軾의 詩가 많은 이들의 호응을 이끌어낸 데는 蘇軾 개인의 천재적 역량에 기인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그의 시집이 유행하고 전파가 烏臺詩案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본고의 주장 뒤에는 蘇軾이라는 불세출의 인재가 갖고 있는 상징성과 영향력에 대한 긍정이 자리 잡고 있다. 다만 蘇軾이 신법파의 주요 공격대상이 되어 문자옥의 희생양이 된 이유에 대한 기존의 설명을 보충하고자 할 따름이다. 蘇軾이 제과를 통과한 인재로서 나이에 비해 높은 직책에 있었다고는 하나 그의 정치적 영향력은 크지 않은 것이었다. 그가 王安石을 피해 杭州通判으로 부임한 이후 지방관을 전전했다는 점이 이를 대변한다. 정치적인 문제만을 생각한다면 蘇軾을 공격해도 신법파들이 크게 얻을 것이 없었다. 물론 司馬光과 張方과 같은 거물을 함부로 건드리기 보다는 그 아래 蘇軾과 같은 인물을 문제 삼는 것이 정치 투쟁의 정석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모든 설명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바로 당시 정치 세계에서 蘇軾이 가진 얼마 안 되는 영향력에 무형의 힘을 실어 주었던 것은, 신법파들로 하여금 그 무형의 힘을 견제해야겠다고 마음먹게 했던 것은 바로 仁宗, 神宗 시기 출판 시장의 비약적인 발전 속에 유행했던 蘇軾의 ‘시’라는 사실이다.<sup>16)</sup>

한편 烏臺詩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궁금해 하는 질문은 바로 蘇軾의 ‘시’에 비방, 혹은 풍자의 함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다. 烏臺詩案에 연루된 ‘시’들이 실제로 정치적 비판의 수위가 높은 ‘시’인지를 분별해내는 작업은 곧 烏臺詩案이 단순히 신법파들이 날조한 사건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蘇軾의 죄를 인정할 부분이 있는지를 판가름 짓는 요건이 된다. 曾棗庄 등의 연구자들은 《烏臺詩案》에 실려 있는 ‘시’들을 분석하여, 정치적 함의가 있는 ‘시’, 단순히 사회 현상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16) 사실 烏臺詩案의 원인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당시 北宋의 정치 상황을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논문은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못했고 해결하지 못했던 점들을 중심으로 거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신법당과 구법당과의 당쟁 같은 北宋 시기 정치 상황에 대한 논의는 여기서 생략한다.

가진 ‘시’, 정치 비판과 아무 상관 없는 ‘시’ 등으로 분류한 바 있다. 王水照 또한 이와 같은 맥락에서 <팔월 보름에 조수를 구경하다(八月十五日看潮五絶)>과 같은 ‘시’처럼 어사대의 핍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법과의 관련성을 인정했을 뿐, 烏臺詩案에 관련된 ‘시’들이 실제로 신법과는 무관한 사회시라 지적한 바 있다.<sup>17)</sup> 그의 주장이 타당한 것인지 《東坡烏臺詩案》의 내용을 살펴보자.

<항주 전당강 조수를 구경하다(杭州觀潮五首)>: 하나. 희녕 육년 항주 통판으로 있을 당시, 팔월 십오일에 전당강의 조수를 구경하고 다섯 수를 항주의 안제정에서 지었습니다. 앞의 세 수에는 비방의 뜻이 담겨 있지 않으나 제사수에 이르러 “오나라 땅 사람들은 자라면서 물과 친해져, 이익을 탐해 목숨을 경시하고 자신을 안 아끼네. 동해가 임금님의 깊은 뜻을 안다면, 틀림없이 개펄을 뽕밭으로 바꿀 텐데.”라 하였습니다. 파도 타는 이들이 관아에서 주는 상품을 탐하다가 익사하는 일이 생겨나는 까닭에 조정에서 교지를 내려 금하게 하였다고 말한 것입니다. 저는 주상이 수리사업 일으키길 좋아하시나 이는 이익은 적고 해가 많은 일이라 여기고 “동해가 임금님의 깊은 뜻을 안다면, 틀림없이 개펄을 뽕밭으로 바꿀 텐데.”라 했으니 이는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어려우리란 말로서 조정의 수리 정책이 이루어지기 어려움을 비방하였습니다. 저는 팔월 이십이일에 어사대에 있으면서 엄법이 해롭다는 등의 사유를 거짓으로 둘러대었다가 계속 숨기고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습시다만, 이십사일 거듭된 심문에 비로소 진술하였습니다. 이 시는 성지가 내려진 책자에 실려 있습니다. (熙寧六年任杭州通判, 因八月十五日觀潮, 作詩五首, 寫在本州安濟亭上, 前三首并無譏諷, 至第四首云, “吳兒生長狎濤淵, 冒利忘生不自憐. 東海若知明主意, 應教斥鹵變桑田.” 蓋言弄潮之人, 貪官中利物, 致其間有溺而死者, 故朝旨禁斷. 軾謂主上好興水利, 不知利少而害多, 言“東海若知明主意, 應教斥鹵變桑田.” 言此事之必不可成, 譏諷朝廷水利之難成也. 軾八月二十二日在臺, 虛稱言鹽法之爲害等情由. 遂次隱諱, 不說情實, 二十四日再勸方招. 其詩係册子內)

17) 王水照, <蘇軾的政治態度和政治詩>, 《蘇軾研究》一, 石家莊: 河北教育出版社, 1999, 141쪽.

이 글을 읽어보면 王水照가 주장하는 것처럼 蘇軾이 신법과가 요구하는 대로 무조건 비방의 의미가 있다고 긍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첫째로 다섯 수의 ‘시’ 중에서 앞의 세 수에는 비방의 의미가 없음을 주장했다는 점, 둘째,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시’와 수리 사업을 연관 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는 하나 ‘과도 타는 이들이 관아에서 주는 상품을 탐하다가 익사하는 일이 생겨나는 까닭에 조정에서 교지를 내려 금하게 하였다’에서 볼 수 있듯이 자신이 이 ‘시’에서 본디 말하고자 했던 의미도 빼놓지 않고 진술했다는 점이다. 텍스트를 잘 읽어보면 蘇軾은 비방의 의미가 있을 때는 있다고 답하고 없을 때는 없다고 대답하며, 자신과 관계있는 사람 중에 조정을 비방하는 내용의 ‘시’를 받은 이와 그렇지 않은 이를 구분해 진술했다. 단순히 폄박에 못이긴 진술이었다면 이런 구별이 무의미했을 것이다. 물론 이전 연구자들이 본 대로 蘇軾의 진술문 중에는 분명 억지로 신법을 비방했다는 사실을 만들어낸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 점에 있어서 이전의 연구가 蘇軾의 억울함을 항변해주는 입장에 서서 다분히 편파적이었다면 이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시’들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다시 읽어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논의할 것은 바로 《烏臺詩案》에는 비방하는 의미가 없는 ‘시’도 기록되어 있는데 왜 그보다 더 심하게 조정을 비판한 ‘시’는 제외되었는가 하는 문제다.

비판의 강도로 볼 때 다른 ‘시’들 못지않으나 烏臺詩案에 연루되지 않은 ‘시’로 熙寧 7년(1074), 소식이 杭州通判으로 있을 때 지은 것을 보자.

捕蝗至浮雲嶺, 山行疲茶, 有懷子由弟二首

누리를 잡으러 부운령으로 갔는데 산행에 지친 채 동생 자유가 그리워져서

其一

西來煙障塞空虛,	서쪽에서 온 뿌연 안개가 허공을 꽉 메우더니
灑徧秋田雨不如.	가을 논에 빼곡히 앉는 게 비보다도 더하네.
新法清平那有此,	신법이 맑고 공평한데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

老身窮苦自招渠. 늙은 이 몸의 곤궁과 고생은 스스로 초래한 것이리.  
 無人可訴烏銜肉, 까마귀가 고기를 물고가도 얘기해줄 사람이 없고  
 憶弟難憑犬附書. 동생이 그리워도 개에게 편지를 부탁하기 어렵네.  
 自笑迂疏皆此類, 처세가 서툴러 늘 이따위라 나 스스로 웃나니  
 區區猶欲理蝗餘. 구차하게 여전히 남은 누리나 잡으려 하네.

이 시의 제3구를 보면 노골적으로 ‘新法’을 비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구절이 烏臺詩案에 연루되었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sup>18)</sup>

《烏臺詩案》에는 신법과 크게 관련이 없고, 비방의 내용이 없으나 심문을 당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데도 말이다. 예를 들어 《烏臺詩案》에 들어 있는 다음 항목을 살펴보자.

<장씨난고원기>

하나. 원풍 이년 삼월 이십칠일에 장석 수재에게 숙주 영벽진에 있는 장씨의 난고원에 기문을 찬한 것에는 비방의 내용이 없습니다.(〈張氏蘭臯園記〉: 一. 元豐二年三月二十七日, 與張碩秀才撰宿州靈璧鎮, 張氏蘭臯園記, 卽無譏諷)

<장씨난고원기>라는 항목 아래에는 위와 같이 짧은 진술이 실려 있다. 蘇軾은 심문 리스트에 올라있던 <張氏蘭臯園記>에 대해 비방의 사실이 없다며 부인하고 있다. 신법과의 입장에서 볼 때 비방의 사실이 없는 <장씨난고원기>와 같은 문장을 문제 삼는 것보다는 <捕蝗至浮雲嶺, 山行疲茶, 有懷子由弟二首>의 첫 수와 같이 직접적으로 신법을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심문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그런데도 현재 우리가 보는 《烏臺詩案》에서 문제가 될 법한 ‘시’가 제외되어 있는 이런 현상이 발견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莫礪鋒은 이에 대해 ‘현재 《烏臺詩案》 속에 남아 있지 않을 뿐이지

18) 오히려 이 ‘시’의 제2수가 《烏臺詩案》에 거론되어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 하겠다.

그 당시에는 검토 대상에 올라 있었을 것<sup>19)</sup>이라는 가설을 내놓았다. 여기에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당시 어사대에서 조정에 바친 蘇軾의 시집인 《錢塘集》이 산실되었고, 현재 남아 있는 《烏臺詩案》의 내용도 전해지는 과정에서 얼마나 산실, 삭제되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杭州, 密州, 徐州, 湖州에 이르기까지 蘇軾의 ‘시’ 중에서 풍자의 수위가 매우 높으면서도 사건에 연루되지 않은 것이 어찌다 빠뜨리는 수준의 것이 아니라 그 양이 제법 많다는 점, 현존 烏臺詩案 관련 판본의 책에서 거론된 ‘시’들의 차이가 거의 없다<sup>20)</sup>는 점을 볼 때 莫礪鋒의 가설은 완전히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여기서 가설을 내놓는다면 첫째, 어사대에서 심문한 ‘시’들이 이미 당시에 상당히 유명한 ‘시’들이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어사대에서 죄인을 심문하고 또 그들의 심문을 정당화하기 위해 다수의 사람들을 설득할 만한 증거를 내놓음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인구에 회자되는 ‘시’를 끌어오는 것이다. 신법과 인사들은 蘇軾을 먼저 체포한 이후 모두를 설득할 만한 증거를 찾기 위해 蘇軾이 관직을 역임했던 곳에 사람을 보내 관련된 시문을 찾아<sup>21)</sup>내면서 저자에서 팔리는 시집 외에도 상당히 많은 ‘시’를 찾아낸 것으로 보인다. 이런 다수의 ‘시’ 중에서도 특별히 그 ‘시’를 끄집어낸 것은 아마도 상당히 호응을 받았던 것들이라서 백성들의 풍속을 어지럽히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何正臣 등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로 적합했기 때문일 것이다. 둘째, 《烏臺詩案》의 원문에 따르면 어사대에서 이들 ‘시’의 해석에 있어서 상당 부분 蘇軾 본인의 진술과 뚜렷치 않은 기억<sup>22)</sup>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어

19) 莫礪鋒, <烏臺詩案史話>, 《古典文學智識》, 2008年 2期.

20) 비교적 간행 시기가 이른 朋九萬의 《東坡烏臺詩案》과 胡仔의 《苕溪漁隱叢話》의 경우를 살펴보자. 이 두 책이 본래 어떤 문건을 기초로 편집된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그러나 이 두 책에서 관련된 ‘시’의 출입을 거의 발견할 수 없다. 더구나 胡仔의 경우 자신의 아버지가 어사대에서 문건을 직접 보고 베껴 책을 보았다고 주장했는데 《苕溪漁隱叢話》에 실린 ‘시’와 《東坡烏臺詩案》에 실린 ‘시’의 차이가 거의 없음을 볼 때 이 두 책에 실린 ‘시’ 외에 더 많은 ‘시’가 거론되었으리라는 주장은 성립되기 어려워 보인다.

21) 이렇게 杭州에서 찾아낸 ‘시’를 기록한 것을 ‘詩帳’이라 불렀다.

편 ‘시’들은 의도적으로, 혹은 의도하지 않게 빠지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捕蝗至浮雲嶺, 山行疲茶, 有懷子由弟二首>과 관련된 《烏臺詩案》의 기술을 살펴보자.

그해 십이월, 저는 항주에 막 도착해 자유에게 시<sup>23)</sup>를 부쳐, “숲속에서 혼자 잘 땀 꿈자리도 좋더니만, 속세를 돌아보니 우환이 가득하네. 말을 죽이고 마차를 부수고 이곳에서 떠날 테니 자네가 온들 어디 가서 내 행방을 묻겠나?”라 했습니다. 또한 “세상사를 보노라니 내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건만, 성운을 잊지 못해 물러나지도 못했구나.”<sup>24)</sup>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신법 중 청묘법, 조역법 등이 번잡하여 힘써 일할 수 없으니, 역시 저의 재능과 힘으로는 임무를 당해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當年十二月內, 軾初任杭州, 奇子由詩云, “獨眠林下夢魂好, 回首人間憂患長. 殺馬破車從此誓, 子來何處問行藏.” 又云 “眼看時事力難勝, 貪戀君恩退未能.” 意謂新法青苗助役等事, 煩雜不可辦, 亦言已才力不能勝任也)

이 부분에 인용된 시는 각각 <捕蝗至浮雲嶺, 山行疲茶, 有懷子由弟二首>, <初到杭州寄子由二絕> 이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蘇軾이 분명 杭州에 막 도착해 지어 동생인 子由에게 부쳤다고 설명한 이 두 수의 시 중, 앞의 <捕蝗至浮雲嶺, 山行疲茶, 有懷子由弟二首>는 杭州에 막 부임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시는 熙寧 6년(1073)에 지은 것으로 그가 杭州에 부임했던 熙寧 4년과는 시간적 거리가 있다. 이처럼 蘇軾은 이 ‘시’의 창작 시기를 혼동해 진술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노골적으로 신법을 비판한 제1수는 빼고 비방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애매한 제2수를 진술하였다. 제1수를 빼놓은 것이 그의 고의에 의한 것인지는 지금 판단할 수는 없

22) 예를 들어 《東坡烏臺詩案》 중 <장방평을 보내며> 항목을 보자. “제가 그 시를 온전히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저는 장방평이 헛된 말로 된 시를 짓지 말고, 응당 조정의 정사에 잘못된 점을 풍자하는 시를 지어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但軾不全記其詞, 軾欲張方平勿爲虛言之詩, 當作譏諷朝廷政事闕失)”라 했다.

23) <捕蝗至浮雲嶺, 山行疲茶, 有懷子由弟二首>의 제2수 중 일부이다.

24) <初到杭州寄子由二絕> 제1수 중 일부이다.

다. 다만 확실한 것은 烏臺詩案에 연루된 ‘시’는 蘇軾 개인의 기억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지적할 것은 烏臺詩案이 이후 문자옥의 전범, 전형이 되었다는 논자들의 설명에 구체성이 결여되었다는 점이다.<sup>25)</sup> 즉 烏臺詩案이 문자옥으로서 전형성을 가진다면 그것은 어떤 측면에서인지, 다른 문자옥과의 차이는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논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唐대에 일어난 문자옥이라 하면 그 화가 자신의 일생에 미치는 정도의 것이었다. 孟浩然이 唐 玄宗 앞에서 ‘재주가 없어 영명하신 군주의 버림을 받았다(不才明主棄)’는 내용의 시구를 읊었다가 현종의 노여움을 사서 평생토록 포의로 살아야했던 경우<sup>26)</sup>, 사회 비판적인 내용의 시를 지었던 白居易가 조정의 노여움을 사서 江州司馬로 폄적되었던 경우만 보아도 비록 文字 때문에 개인의 희망은 좌절되었을지 몰라도 그 여파가 주변에게로 확대되거나 목숨을 잃은 경우는 없었다. 明, 淸대에는 文字獄이 더욱 빈번히 일어나고 그 처벌도 더욱 잔혹해지는 경향을 띤다. 이때에는 일말의 합리성을 갖춘 증거를 찾지도 않은 채 그야말로 억지로 죄를 뒤집어씌우는 경우가 많다. 烏臺詩案에서 다수를 설득할 만한 증거를 비교적 합리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어사대에서 백방으로 애를 쓴 경우와 대조적이다. 다시 말해 이전 연구자들이 烏臺詩案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無中生有)’ 날조한 사건이라 주장했지만 烏臺詩案 전후의 문자옥을 살펴보면 신법과 인사들은 이 사건을 성립시키고 자신들의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상당히 공을 들여 항목별로 심문, 죄를 실토하게 하고 조목조목 진술서를 받아냈다. 자신들의 권력을 행사해서 죄를 뒤집어씌우면 될 일이었는데도 무엇 때문에 이처럼 번잡한 과정을 거쳐 비교적 합리적으로 보이는 증거를 찾아내려고 했던 것일까. 필자는 이것이 신법과 인사들도 ‘시’를 가지고 사건을

25) 예를 들어 ‘정적에게 문화적 죄명을 부여하는 문자옥의 전형이 되었다’는 주장과 같은 것들 말이다. (박경희, <北宋의 문학 文字獄>, 《中國學報》 47집, 287쪽.)

26) 《新唐書列傳·文藝》 권 203 참조.

만들어내는 행위 자체가 처음이었기 때문이었으리라 생각한다. 다시 말해 이전에 없던 사건의 유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더욱 신중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여 다수를 설득할 합리적 증거를 찾아야 했다는 것이다. 더구나 宋太祖는 開國 이후 文人 우대 정책을 펼치면서 士를 함부로 죽이지 않겠다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이에 따라 宋대에는 士에 대한 처벌이 극형으로 치달은 적이 없었다. 이러한 국가제도 때문에서라도 어사대가 蘇軾이라는 문인을 함부로 죽음으로 내몰 수는 없었다. 바로 이 점이 어사대에서 文字獄을 만들어내는 데 필요 이상의 공력을 들인 이유와 연관되어 있다.

또 이와 같은 문자옥이 일어나도 詩話 등에 짧게 기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치 집단의 눈을 피해 사건의 문건을 기록, 출간, 유통시킨 예, 즉 《烏臺詩案》처럼 사건의 기록이 출간되어 대중의 눈을 사로잡은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sup>27)</sup> 바로 이런 차이점들을 변별해내는 과정 속에서 烏臺詩案의 특이성, 가치를 재발견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2) 《烏臺詩案》 텍스트의 가치 再考

烏臺詩案이 종결된 이후 그 사건과 관련된 정부 문건이 한 데 묶여져 책으로 출간되는 이례적인 일이 일어났다. 이르기로는 南宋대에 만들어져 사람들 사이에서 유전되다가 현재에는 크게 네 종류가 남아있다.<sup>28)</sup>

### ① 南宋 - 朋九萬의 《東坡烏臺詩案》<sup>29)</sup>

27) 예를 들어 明대 문자옥은 기록이 된 경우가 거의 없다. 공포 정치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를 기록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三千年文禍》 322쪽 참조)

28) 이 책들의 판본 문제는 溫澤遠의 박사학위 논문(溫澤遠, <烏臺詩案研究>, 上海: 復旦大學 中文系, 1999)과 劉德重의 소논문(劉德重, <關於蘇軾“烏臺詩案”的幾種刊本>, 《上海大學學報》 Vol. 9, 2002)에서 다루어진 바 있다.

29) 현재 남아 있는 朋九萬의 《東坡 烏臺詩案》은 크게 函海本과 忞花庵叢書本으로 나눌 수 있다. 函海本 《東坡烏臺詩案》의 경우 淸代 李調元이, 忞花庵叢書本 《東坡 烏臺詩案》은 淸代 宋澤元이 編한 것이다. 이 책이 詩案의 원형에 가깝고 宋대에 출간되었던 책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 책은 蘇軾을 고발하는 네 신하(何正臣, 舒亶, 李宜, 李定)의 劄子, 蘇軾의 進劄

- ③ 南宋 - 胡仔의 《苕溪漁隱叢話》 前集<sup>30)</sup>
- ④ 南宋 - 周紫芝의 《詩讞》<sup>31)</sup>
- ⑤ 淸代 - 張鑿의 《眉山詩案廣證》 6권<sup>32)</sup>

위의 책들은 책마다 체제가 다르다. 烏臺詩案에 연루된 ‘시’ 중 <山村>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자.

서인 供狀과 그가 연루된 시를 구체적으로 해명한 부분, 어사대의 판결문인 結案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때 蘇軾의 구체적인 진술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제목이 붙어 있다.

- 30) 胡仔는 이 책에서 ‘자신의 아버지가 靖康 연간에 臺端이 되었을 때 어사대에 있던 소식의 詩案이 모두 있는 것을 보고 베껴놓았던 것을 보았다’라는 요지의 말을 한 바 있다.(余之先君, 靖康間嘗爲臺端, 臺中子瞻詩案具在, 因錄得其本. 與近時所刊行烏臺詩話爲尤詳. 今節入叢話以備觀覽) 《苕溪漁隱叢話》와 朋九萬의 《東坡烏臺詩案》을 비교해보면 네 명 신하들의 筭子和 마지막에 있는 結案狀이 빠져 있긴 하나 내용상 큰 차이는 없음을 알 수 있다. 다만 詩話라는 형식에 맞게 편집해 놓았을 따름이다. 朋九萬의 《東坡烏臺詩案》이 더 상세하다.
- 31) 淸代 曹溶이 編하고 陶越이 增訂한 《學海類編》에 들어있는 판본이다. 周紫芝는 《詩讞》의 발문에서 자신이 알고지내는 趙거사를 통해 烏臺詩案에 관련된 문건을 보니 그 내용이 매우 상세하다고 느껴 정리, 기록한다고 밝혀놓았으나, 이 책은 앞서 논한 책들에 비해 매우 간략하다. 상소문과 結案狀 등이 없고 ‘시’의 제목 아래에 蘇軾의 진술과 다른 詩話의 내용이 정리되었다는 점에서 《苕溪漁隱叢話》와 유사하나 내용도 이보다 더 간략하고 ‘시’의 제목도 축약해서 인용한 일종의 요약본(digest)이다. 다만 이 책이 僞書임을 주장했다는 의견(劉德重, <關於蘇軾“烏臺詩案”的幾種刊本>)이 있다는 것이다. 논자는 그 근거로 烏臺詩案에 연루되지 않은 시 두 수가 수록되어 있고, 1155년에 죽은 周紫芝가 1167년에 만들어진 《苕溪漁隱叢話》의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 되어 있다는 점, 周紫芝의 題跋이 周紫芝의 <《시열》을 읽고(讀詩讞)>이라는 글에서 따온 것일 뿐 周紫芝가 글을 쓰는 풍모와 다르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다른 논자들은 이 책의 진위 여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여기서도 이 책을 위서라 단정 짓고 논외로 하기 보다는 비교 검토 대상으로 삼아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정도로 그치려고 한다.
- 32) 이 책은 烏臺詩案에 대한 책들을 집대성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존의 자료들을 망라하면서 張鑿 자신이 ‘鑿案’이라 하여 고증한 사실과 자신의 생각을 밝혀 놓았다.

㉠ 南宋 - 朋九萬의 《東坡烏臺詩案》

<왕선과 주고받은 시부(與王詵往來詩賦)>

…… 또한 제이수에서도 “일흔 살 먹은 늙은이도 스스로 허리에 낫을 차니, 봄 산의 죽순과 고사리가 달콤함이 부끄럽네. 어찌 <소>를 듣고 맛을 잊을 줄 아는 것이라? 근래에 석 달 동안 소금이 없기 때문이라네.”라 했는데 산 속의 사람들이 가난하여 먹을 것이 없자 비록 늙었다 해도 오히려 스스로 죽순과 고사리를 꺾어 배고픔을 이겨보는 것은, 이때 엄법이 너무 급박하게 시행되어 편벽한 곳의 사람들은 몇 달이 지나도록 소금 없이 밥을 먹었음인데, 만약 옛 성인이라야 능히 소를 듣고 맛을 잊겠지만 산속에 사는 백성이 어찌 소금 없이 싱겁게 먹고서 즐거워 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말하여서 엄법이 너무 급한 것을 비방하였습니다. (又第二首<sup>33</sup>)云, “老翁七十自腰鎌, 慙愧春山笋蕨話. 豈是聞韶解忘味, 邇來三月食無鹽.”, 意山中之人, 饑貧無食, 雖老猶自採笋蕨充饑, 時鹽法峻急, 僻遠之人無鹽食, 動經數月, 若古之聖人, 則能聞韶忘味, 山中小民, 豈能食淡而樂乎, 以譏諷鹽法太急也)

㉡ 南宋 - 胡仔의 《苕溪漁隱叢話》 前集

<山村詩云>

……又云“老翁七十自腰鎌, 慙愧春山笋蕨話. 豈是聞韶解忘味, 邇來三月食無鹽.”, 意言山中之人, 饑貧無食, 雖老猶自採笋蕨充饑, 時鹽法峻急, 僻遠之人無鹽食, 動經數月, 若古之聖賢, 則能聞韶忘味, 山中小民, 豈能食淡而樂乎, 以譏諷鹽法太急也.

㉢ 南宋 - 周紫芝의 《詩諷》

<山村絕句>

老翁七十自腰鎌, 慙愧春山笋蕨話. 豈是聞韶解忘味, 邇來三月食無鹽

諷案意言山中之人, 饑貧無食, 雖老猶自採笋蕨充饑, 時鹽法峻急, 僻遠之人無鹽食, 動經數月, 若古之聖賢, 則能聞韶忘味, 山中小民, 豈能食淡而樂乎, 以譏諷鹽法太急也.

㉣ 淸代 - 張鑿의 《眉山詩案廣證》 6권

<山邨絕句> 鑿案 今施注本作山邨絕句

……老翁七十自腰鎌, 慙愧春山笋蕨話. 豈是聞韶解忘味, 邇來三月食無鹽.

33) 王文誥 《蘇軾詩集》과 순서가 다르다. 여기서 말한 제2수와 제3수는 《蘇軾詩集》에서 각각 제3, 제2수이다.

烏臺詩案 此詩意言山中之人，饑貧無食，雖老猶自採筍蕨充饑，時鹽法峻急，僻遠之人無鹽食，動經數月，若古之聖賢，則能聞韶忘味，山中小民，豈能食淡而樂乎，以譏諷鹽法太急也

……鑿案此詩案從宋詩紀事採錄

㉠는 <왕선과 주고받은 시부(與王詵往來詩賦)>라는 제목 아래에 왕선과 주고받은 여러 ‘시’를 설명하면서 <山村> 시를 거론하고 있다. 먼저 문제가 된 시구를 인용하고 그 아래에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조정과 신법을 비방한 것인지 蘇軾 자신이 진술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는 정부 문건의 모음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왕선과 주고받은 시부(與王詵往來詩賦)>, ‘주빈에게 부쳤던 시들(<寄周邠諸詩>)’과 같이 항목을 나누고 그 아래에 관련된 사람과 있었던 일, 주고받은 ‘시’, 구체적인 비방의 의미를 진술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sup>34)</sup> ㉡는 詩話라는 글쓰기 양식에 맞추어 ‘시’를 중심으로 편집을 가했다. ‘시’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이 ㉠와 다르지 않지만 ‘시’의 제목을 달고 그 아래에 ㉠의 내용을 끌어와 ‘시’를 중심으로 보기에는 ㉡가 더 간편하다. 이때 필요할 경우 ㉠에는 斷章取義 되어 있는 ‘시’ 전문을 인용하고 있다. 이것 역시 읽는 이의 편의를 위한 시도로 보인다. ㉢ 역시 ㉠와 마찬가지로 ‘시’ 중심의 서술이다. 詩案에는 절록되어 있는 ‘시’라도 그 전문을 싣고 ‘讞案’ 아래에는 ㉠에서 다루어진 蘇軾의 진술을 절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은 매우 간단하여 사람들이 간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한 요약본(digest)으로 보인다. ㉣는 다른 세 권의 책에 비해 매우 방대한 자료들을 총망라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鑿案’을 달아서 고증한 내용 등을 싣고 있으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

이처럼 하나의 사실에 대해 다른 체제로 기술하고 있는 판본이 존재한다는 것, 다양한 책이 존재한다는 것은 당시에 烏臺詩案이 얼마나 사람들

34) 그러나 이 제목의 체제도 일정치 않아서 ‘항주에서 조수를 보고 지은 다섯 수 <杭州觀潮五首>’처럼 ‘시’의 제목이 항목의 제목이 된 경우도 있다. 이는 사람과 관련된 시는 사람 중심으로, 명확히 관련된 인사가 없을 경우 ‘시’를 중심으로 진술문의 제목을 정한 때문으로 보인다.

의 관심을 끌었고 사람들이 이 사건의 전모와 이 사건에 연루된 ‘시’를 알고 싶어 했는지를 보여준다. 이로보아 烏臺詩案은 사건 직후부터 사람들의 관심을 끈 이른바 가십(Gossip)이었던 것이 분명하다. 그 증거로 《詩讞》의 발문을 살펴보자.

《詩讞》 발문: 공이 체포되어 지낸 백 여 일 동안 어사들이 추궁하고 심문한 말들은 모두 시어에 비방의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와 관련된 것들이었기에 당시에 책을 좋아하는 호사자들이 왕왕 다투어 전하며 암송하며 이를 《시열》이라 불렀다. 내가 전후로 본 몇몇 책들은 비록 대개가 그만그만한 것들이었지만 처음과 끝, 상세하고 간략한 정도의 차이가 많았다. 지금 조거사가 요직에 있는 저대부의 집에 소장된 것을 갖고서 나에게 보여 주는데 이전에 보았던 책들보다 한결 상세하여 좋은 판본이라 생각했다. (公就逮百有餘日, 凡御史追捕訊鞠之辭, 率坐詩語譏謗, 故當時款牘好事者, 往往爭相傳誦, 謂之《詩讞》. 予前后所見數本, 雖大概相類, 而首尾詳略多不同. 今日趙居士携當途儲大夫家所藏以示予, 比昔所見加詳, 蓋善本也)

이 글을 보면 사건이 끝나자마자 호사자들은 蘇軾의 ‘시’를 다투어 암송하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책들이 유통되었다. 《烏臺詩案》, 《苕溪漁隱叢話》, 《詩讞》과 같은 형태의 글들이 현재에도 남아 있는 것은 이 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그 필요는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 느끼는 강한 흥미, 호기심에서 연원한다.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蘇軾이라는 인물의 유명세와 영향력에 기인하지만 인쇄 기술과 출판 시장의 확대라는 배경이 없었다면 일어나기 힘든 현상이었다.

그러나 필자는 이 책들의 유통 속에서 烏臺詩案의 또 다른 사회적 영향이 발휘되었으리라 추측한다. 바로 이 책을 읽는 과정에서 독자들이 자기 검열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으리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 사건 이후 蘇軾의 동생, 蘇轍은 자신의 글들 중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스스로 삭제하고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신의 시집이 출간되는 것을 막았다.<sup>35)</sup> 이후

35) 周宝榮, <從“烏台詩案”看蘇氏兄弟的出版活動>, 《河南科技大學學報(社會科學

연구에는 蘇轍 뿐만 아니라 다른 시인들에게 끼친 烏臺詩案의 영향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을 통해 시인들이 느꼈을 두려움과 경각심이 ‘시’를 창작함에 있어서 자기 검열과 표현의 자제를 불러 일으켰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이 사건을 단순히 蘇軾 개인의 문제로 귀결 짓는 것이 아니라 동시대, 혹은 이후의 문인들에게 남긴 상흔을 밝혀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烏臺詩案》 텍스트에서 변별해내야 할 문제로 또 한 가지가 있다면 《烏臺詩案》 속 ‘시’에 대한 해설이 비록 꺾박에 의한 것이라곤 해도 시인의 의도를 시인이 직접 설명한 중요한 진술서라는 점이다.<sup>36)</sup> 이전 연구자들은 이 진술이 꺾박에 의한 것이라 믿기 어렵다는 의견이었다. 흔히 蘇軾의 詩가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된 방식을 이야기할 때 예로 드는 사례가 바로 <왕복 수재 거처에 있는 두 그루의 노송나무(王復秀才所居雙檜二首)>이다.

凜然相對敢相欺,	늠름하게 마주 서 있으니 누가 감히 업신여기랴?
直幹凌空未要奇.	곧은 줄기가 하늘을 찌르니 굳이 기이할 필요 없다네.
根到九泉無曲處,	황천까지 뺨은 뿌리 굽은 데가 없는 줄은
世間惟有螾龍知.	세상에서 오로지 칩룡만이 안다네.

이 詩는 제4구의 ‘螾龍’이라는 시어 때문에 논란이 많았다. 여러 詩話에 따르면 신법과들은 이 시에서 말한 ‘숨어 있는 용(螾龍)’이 神宗 황제 이외에 또 다른 천자를 가리키므로 蘇軾이 황제를 배반할 생각을 하고 있다며 모함했다고 한다. 이들 詩話의 내용상 진실 여부는 차치해두고 이 시가 과연 烏臺詩案과 관련되어 있었던 것인지를 판별해보자. 이 ‘시’는 朋九萬의 《東坡烏臺詩案》에만 실려 있지 않고 나머지 세 텍스트에는 모두 거론되어 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胡仔의 《苕溪漁隱叢話》 前集과 周紫

版)》, 河南鄭州: 河南教育報刊社, 2003年 3期, 115쪽.

36) 이는 周克勤의 석사학위 논문에서도 잠시 언급되긴 했다.

芝의 《詩讞》의 경우, 烏臺詩案에 연루된 ‘시’를 인용할 때 《東坡烏臺詩案》에도 있는 내용, 즉 어사대에서의 蘇軾의 진술을 반드시 절록, 부기하였는데, 이 시에 대해서만큼은 蘇軾의 진술이 아닌 기타 詩話를 인용해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이 ‘시’는 胡仔와 周紫芝가 이와 관련된 일화가 ‘시’를 통한 정치 공세라는 점에서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인용한 것일 뿐, 이들 두 사람은 애초부터 이 시에 대해 蘇軾이 직접적으로 진술한 진술문을 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 ‘시’는 본디 烏臺詩案에 관련된 ‘시’가 아니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신법과들이 蘇軾을 포함하기 위해 역지로 시의 내용을 끼워 맞추었던 예로 이 ‘시’를 꼽았던 이전 논자들의 논리는 성립되기 어렵다.

필자는 蘇軾의 진술문이 蘇軾의 본래 의도와는 무관하다는 이전 주장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역대로 짧은 自註를 다는 것 외에 자신의 ‘시’에 대해 이렇게 긴 해설을 남긴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菴溪漁隱叢話》를 보자. 이 책에서는 蘇軾의 시와 烏臺詩案의 진술을 편집, 기록하고 있다. 詩話의 본래 목적이 시에 대해 논하는 것이 라면 시인 자신보다 그 시의 본래 의도를 더 잘 해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바로 이 점을 중시했기 때문에 《菴溪漁隱叢話》는 蘇軾의 ‘시’를 설명하면서 《烏臺詩案》의 내용을 편집해 신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다음의 시구를 보자.<sup>37)</sup>

小人眞闇事,      소인들은 참으로 사리에 어둡나니,  
閑退豈公難.      한가로이 물러나 사는 게 어찌 공을 어렵게 하리오?

이 두 구만 보더라도 小人들이 범경인과 정치적으로 대립된 입장을 가진 인물들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蘇軾의 ‘시’에서 ‘小人’이라는 시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소인배’ 째의 의미로 넘겨버려서는 안 된다. 이 ‘小人’은 歐陽修가 <朋黨論>에서 거론한 바대로 君子와 대칭되는 의미

37) <送范景仁游洛中>중 일부이다.

인 동시에, 蘇軾이 <湖州謝上表>에서 비꼬았던 ‘新進’과 같은 의미로서 결국 신법과 전체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이는 蘇軾 자신이 “지금 소인배들은 작은 재주로 높은 지위를 누리나 사리에는 어두워 나아감을 영광으로 여기고 물러남을 욕됨으로 여긴다”<sup>38)</sup>라 한 진술과도 일치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이 ‘시’ 바로 다음에 지어진 시<sup>39)</sup>에서 ‘공은 늙고 나 또한 노쇠하여’<sup>40)</sup>라 한 데서의 ‘老’와 ‘衰’가 뜻하는 바가 단순히 사람이 나이가 들어 ‘늙고’, 건강이 좋지 않아 ‘노쇠’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는 근거를 찾을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의 ‘老’와 ‘衰’는 ‘小人’과 ‘新進’과 대비된, 구법과인 자신들을 가리키는 詩語이다. 따라서 烏臺詩案에서 蘇軾의 진술은 강요에 의한 것이라 무시할 것도 아니며, 오히려 그의 다른 ‘시’를 읽어낼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는 중요한 근거로 삼아야 한다.

### III. 결 론

우리는 蘇軾의 명성에 압도된 나머지 그와 관련된 연구에 있어서 원인과 결과를 蘇軾 개인사에 초점을 맞추어 도출해내려는 경향이 있다. 이전 연구자들은 烏臺詩案의 원인이 蘇軾이라는 인물의 재주와 성격에 있다고 결론짓곤 했다. 필자는 기존 연구의 이러한 시각이 협소하다고 판단, 이전 연구에서 해결하지 못한 근본적인 문제에 해답을 내놓고자 했다.

‘시’에 자신의 정견, 입장, 목적을 담아내도록 하는 중국 시가의 전통에, ‘시’가 일상생활화 되고 현실 속 인간관계의 교분이 ‘시’의 창화로 이어지는 宋대의 詩風, 출판 시장의 발달 속에 蘇軾의 시집이 전례 없이 유행하게 된 문화적 배경 속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다. 이후 이 사건과 관련된 공문서는 책으로 만들어져 유통되기에 이른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천 년의

38) “今時小人以小才而享大位, 關於事理, 以進爲榮, 以退爲辱”

39) <次韻景仁留別>

40) ‘公老我亦衰’

시간을 넘어 蘇軾 개인이 자신의 ‘시’에 대해 진술하고 있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烏臺詩案을 규명할 수 있는 여러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이 논문은 烏臺詩案이 역설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중국 ‘시’의 의미와 ‘시’가 유통되는 문화사적 배경, 이후 문인들이 ‘시’ 창작을 하는 데에 끼친 영향 관계에 대한 것이다. 본고에서 세운 몇 가지 가설들은 추후 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논증하기로 한다.

### <參考文獻>

- 朋九萬(宋)撰; 李調元(清)編, 《東坡烏臺詩案》, 綿州(清): 萬卷樓, 道光 5(1825).
- 胡仔, 《茗溪漁隱叢話》(香港: 中華書局), 1976.
- 周紫芝 錄, 《叢書集成初編: 詩讞》(北京: 中華書局), 1985.
- 張鑑(清)著; 郁士禎(清)校, 《眉山詩案廣證》, 清: 江蘇書局, 光緒 10 (1884).
- 蘇式 撰; 王文誥 輯注; 孔凡禮 點校, 《蘇軾詩集》(北京: 中華書局), 1982.
- 周必大, 《叢書集成初編: 二老堂詩話》(北京: 中華書局), 1985.
- 江惜美, <烏臺詩案研究>(臺灣: 東吳大學 中國文學研究所), 1987.
- 溫澤遠, <烏臺詩案研究>(上海: 復旦大學 中文系), 1999.
- 周克勤, <烏臺詩案研究>(重慶: 西南師範大學 漢語言文學系), 2002.
- 劉德重, <關於蘇軾“烏臺詩案”的幾種刊本>, 《上海大學學報》 Vol. 9, 2002.
- Chales Hartman, <Poetry and Politics in 1079: The Crow Terrace Poetry Case of Su Shi>, 《Chinese Literature: Esseys, Articles, Reviews(CLEAR)》 Vol. 12, 1990, 15-44 쪽.
- 莫礪鋒, <烏臺詩案史話>, 《古典文學智識》, 2007年 5期, 2007年 6期, 2008年 1期, 2008年 2期.
- 楊勝寬, <“烏臺詩案”前後的蘇軾>, 《宜賓師專學報》 1993年 1期, 102-106쪽.

- 夏詩荷, <“三舍人議案”, “烏臺詩案”與宋代政治>, 《溫州大學學報》 Vol. 20, 2007年 7月, 20~25쪽.
- 周宝榮, <從“烏台詩案”看蘇氏兄弟的出版活動>, 《河南科技大學學報(社會科學版)》, 河南鄭州: 河南教育報刊社, 2003年 03期, 18-22쪽.
- 박경희, <北宋의 문학 文字獄>, 《中國學報》 47집, 287-298쪽.
- 曾棗庄, <論眉山詩案>, 《四川師院學報(社會科學版)》, 1980年 03期, 59-88쪽.
- 류종목, 《완역 소식시집》,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 王彬, 《禁書·文字獄》, 北京: 中國工人出版社, 1992.
- 謝蒼霖, 《三千年文禍》, 南昌: 江西高校出版社, 1996.
- 王水照, <蘇軾的政治態度和政治詩>, 《蘇軾研究》, 一石家庄: 河北教育出版社, 1999, 129-147쪽.
- 趙翼, 송용준 역, 《甌北詩話》, 서울: 서울대출판부, 2009.

### <Abstract>

The crow terrace poetry case is both a name of an incident and also a name of a book. The crow terrace poetry case as an incident refers to a sudden arrestment of Su Shi by the Censor for writing poems against the government after he was assigned to Hu-chou(湖州) in the year of 1079. And as a book the crow terrace poetry case consists of government documents such as accusation documents made by the administrators and also the statements by Su Shi about the poem in question which eventually gets published and distributed. The crow terrace poetry case is the first case of 'literary persecution' and also a rare case in the aspect that the records of the incident gets to be published and distributed.

This thesis handles a few questions which was unanswered by the past studies on the crow terrace poetry case. A poem related 'literary persecution' is inevitable in the history of poems. This incident happened in a few traditional Chinese literature backgrounds. Firstly, a poet had to express his or her political views, position and purpose by their poems. Secondly, it became a common poetry style in the Song dynasty period where as a poem became an everyday life literature and in reality an everyday life relations lead to a creation of a poetry. And lastly, the fact that the publishing market was growing worked as another factor of this incident.

The official documents related to this incident finally gets published. This was the result and also the reflection of curiosity of the people on this matter. And while reading this publishment I assume that many poets self eliminated and self censored their own poetries and also

watched themselves of what they say and what they do. These outcomes not only limits the incident as Su Shi's private matter but also had an effect to the creative minds for those who were living at that period.

Key Words : “The crow terrace poetry case”, «The crow terrace poetry case», ‘Poetry’, ‘Literary persecution’, Su Shi, Publishing market development.